

<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LG화학을 경고함!

한국 화학산업의 선도 메이커를 어느 기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LG화학을 꼽는데 대해 이의를 다는 관계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형식적으로 우리나라 화학산업이 태동하게 된 것은 일제시대이고, 60년대 이전까지는 일본이 식량공급을 위해 건설한 비료공장이 전부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낙후된 모습이었다. 실질적으로 한국 화학산업이 태동하게 된 것은 60년대 후반 건설된 대한석유공사의 석유정제공장이 시초이며, 이후 나프타 크래킹센터를 비롯 계열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화학산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공을 한국 화학산업의 시조 또는 메카로 보는 관계자는 거의 없다. 그것은 유공이 석유정제 및 NCC를 위주로 사업을 영위해 국민일반과는 거리가 있었고,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재라는 인식이 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충주비료나 호남비료 등 일제시대에 건설된 비료공장을 화학공업의 효시로 볼 수도 있으나, 일제시대에 우리자본이 아닌 일본자본에 의해 건설됐다는 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국민일반은 비료를 생산하고 있지도 않고-후일 호남비료를 인수한 것은 별개의 문제, 그렇다고 대한석유공사와 관련돼 있지도 않지만 LG화학을 한국 화학산업의 선도 또는 선두 메이커로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LG화학이 화학산업의 효시는 아닐지라도 플라스틱제품을 비롯 일반 소비재들과 친근한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화학산업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오늘에 와서도 LG화학이 한국 화학산업의 선두 메이커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화학강국」을 부르짖는 메카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매출액이 4조를 넘어서고 생산제품수가 수천가지에 이르고 있음은 물론 석유화학에서 정밀화학, 무기화학에 이르기까지 에너지를 제외한 화학산업 전부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G화학은 LG화학 자체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음은 물론 LG화학을 떠나서 한국 화학산업을 대표하는 메이커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LG화학이나 LG그룹의 계열사로서의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화학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주자의 하나로서의 역할이 추가되고 그에 걸맞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LG화학이 수용하던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주어지는 역할이라는 점도 주지시키고 싶다. 특정기업의 사회적 또는 산업적 역할이라는 것은 자의적이 아니더라도 그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관례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LG화학도 경영자나 소속 종업원이나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그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국 화학산업의 선도 메이커라고 자부하는 LG화학이 그 위치에 맞지않는 역할과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면 어떠하겠는가? 그 결과는 실망과 분노일 것이요, 나아가서는 원망으로 가득찬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필자는 91년 5월15일 화학저널을 창간한 이래 줄곧 LG화학을 사랑하는 글을 게재해왔고-물론 LG화학만을 편애한 것은 아니지만, 애정을 가지고 대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렇기에 LG화학이 잘못했거나 실수를 연발할 경우 가차없이 꾸짖었고 개선을 유도했으며, 선도 메이커로서의 자부심에 흠집이 나지않음은 물론 「형님」같은 자세로 경영에 나서도록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LG화학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사화하기 보다는 경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건전한 발전의 틀을 갖추도록 요구했었다. 타 화학기업의 경우도 그러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G화학이 96년 「석유화학 카르텔」 연재 이후 이성을 잃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이성적 작태를 계속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당치」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LG화학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LG화학이 이성을 되찾아 분별있게 행동함으로써 선도 메이커로서의 위치에 흔들림이 없기를 다시한번 기대해본다

<화학저널 1997/7/14>.